



군산장례(전문)예식장



예식실



사우나실



2층로비

거품없는 장례비용으로 예(禮)와
정성(情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T. 468-4119, 4444



상상을
그 이상을
항해!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석도국제페리(주) www.shidaoferry.com

부산 **tel.** 051-441-1100 **fax.** 051-441-1100

제주 **tel.** 064-711-368888 **fax.** 064-711-368888

서울 **tel.** 02-315-7911 **fax.** 02-315-1877

인천 운송사 (주) **tel.** 031-481-1100 **fax.** 031-481-1100

고용의일이 생기는 대학

굿잡!

군장대학교

WURI 세계혁신대학 5년 연속 선정

산업적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tion) 부문

(특성 2020 45위, 2021년 27위, 2022년 32위, 2023년 31위, 2024년 30위 선정)

고용직업교육 분할인증대학 | 교육부 고용직업교육거점 지구(HIVE 1유형) 사업 선정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1,2유형) 선정대학 | 교육부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2.0) 운영대학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 고용노동부 고숙련 일학습병행(IP-TECH) 운영대학
교육부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운영대학 |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운영대학



사유교 단선과 정경외 대학
군장대학교

추억의 철길(?)

군산역은 군산 사람들에게는 아픈 손가락이다. 철로 공사용 채석장이었던 '돌산' 자리에 민간 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 이후 철도 부지에 대한 특별한 개발 소식은 없었다. 열차 이용객들에게는 추억의 장소였는지 모르지만, 도시 발전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셈이었다.

지난 2008년 1월, 군산역은 내흥동 신역사로 이전했다. 이때도 기존 역사 부지(6만8,032㎡)의 활용 방안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일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상공회의소 등 개발론자들의 주장과, 구 역사와 철도를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자는 시의회 및 사회단체의 주장이 맞섰다.

철도로 인해 군산 시민들이 겪었던 피해는 얼마나 컸을까. 물론 일부 이용객들에게는 편리했는지 모르지만, 개발에서 소외된 중동·경암동·조촌동·구암동 지역 주민들, 그리고 소음과 분진 등 공해 피해를 겪은 대명동·장재동·중앙로 일대 거주민들은 말 못 할 설움을 안고 살아왔다.

군산시는 도심 녹지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한편, 근대역 사경관지구와 이어지는 관광 동선을 만들기 위해 폐철도 활용 사업을 추진해 왔다. 첫 삽을 뜬 것은 2022년이었다. 그 결과 2025년 12월 15일, 총 160억 원(국비 80억 원, 시비 80억 원)을 투입해 구 군산화물역에서 사정삼거리까지 2.6km 구간의 1차 도시 숲길을 준공했다.

또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사정삼거리~구 개정역 구간과 대야역 일대 등 3.6km에 대해 132억 원을 들여 2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2028년부터 2년간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역전종합시장

까지 약 1.4km 구간에 24억 원을 투입하는 3차 사업을 계획하고, 국비 공모에 응모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복병을 만났다는 소식이다. 한국철도공단이 폐철도를 활용한 군산시 3차 사업 예정 부지에 포함되는 대명동 138-264 일원 10,967㎡에 트램, 숙박시설, 상업시설, 주차장 등을 포함한 민간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군산시는 1·2차 사업의 국비 공모 응모를 위해 철도공단과 해당 구간에 대한 10년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3차 사업 공모를 위해서는 철도공단이 해당 토지에 대한 민간 개발 계획을 철회하고 군산시와 다시 사용 계약을 맺어야만 가능하다.

별난 역전종합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이 1만 명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8년에 걸쳐 추진해 온 폐철도 활용 시민 숙원사업에 대해 철도공단이 어떤 해답을 내놓을까.

구도심권 폐철로를 녹지 공간으로 바꿀 절호의 기회를 설마 국가기관이 가로막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막힐까, 아니면 풀릴까'를 두고 전전공공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한 오후이다.



글 | 채명룡
발행인

ml7614@naver.com



'단심(丹心)으로 사회복지 앞장'

(사)정강복지센터 국정숙 이사장
소신과 책임감 그리고 전문성으로 자리매김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단심(丹心), 빨간 정성과 열정으로!'

“제 자신부터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책임감,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으로 '사단법인 정강복지센터(이하 정강센터)'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처음부터 늘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정강복지센터 국정숙 이사장의 첫마디이다.
또박또박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에서 단심(丹心)을 느꼈다.
붉은 마음, 변질이 되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같은 정성, 혈성(血誠)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부드럽고 밝은 표정에서 강한 의지가 자연스레 묻어나왔다.
꽤 오랜 시간 쌓인 그의 내공을 직감할 수 있다.



국정숙 이사장

국 이사장은 지난 2017년 5월 1일부터 정강사회복지센터장으로 군산에서 본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했다. 2021년부터 현재의 사단법인 정강복지센터 이사장으로 취임·재직하며 열정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다. 처음에는 ‘방문요양 지원사업’만을 수행했으며 2021년부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5년 동안 사회복지 현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오랜 기간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에서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 각직대에 놓인 어르신 등 소외계층 생활 현장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보람이 커 천직으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

니다.”

“내 부모님이다. 나의 미래 모습이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 어르신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 활동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부족하면 절대 시작할 수도, 오래 할 수도 없어요. 따뜻한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출발점이라면 그 마음이 끊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키고 이끌어가는 정성과 열정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선로이자 등대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 이사장의 기본 성품과 오랜 경험에서 찾아낸 소중한 인생론을 듣는 것 같았다.





교육활동



‘사회 첫발 - 복지 전문가로 우뚝!’

국정숙 이사장은 군산 토박이(금광동)로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수료한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다. 2013년 서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상담사를 시작으로 충남 흥성법원 가사조정위원을 4년 동안 역임했으며 군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 관리사로 1년 동안 재직했다.

“과거에 충남 서천에서 근무할 때 일이다. 서천과 장항지역의 가정폭력 발생 건이 매우 많았다. 안전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제가 업무 담당자로 활동하면서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했다. 당시 경찰 치안 행정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10월에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 보람이 컸고 큰 상을 받아 영광이었다.”라고 잠시 회고했다.

“일하는 노후! 당당한 노후! 행복한 노후!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공익활동 소양교육 I. 기타교육이 지난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정강센터 교육실에서 이뤄졌다. 소양교육은 노인 인권, 성희롱 예방, 노년기의 이해 등을, 기타교육은 아동 학대 예방을 주제로 약 2시간 정도 진행됐다. 국 이사장의 바쁜 일정을 지켜봤다. 인터뷰 내내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교육생들의 인사말과 질문들.. 한결같이 웃으며 필요한 정보와 답장을 보낸다..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 지원자는 “이사장님의 꼼꼼하고 친절한 설명으로 별 어려움 없이 교육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자신감 있게 활동하고 있어요. 늘 감사드려요.”라고 짧게 소감을 전했다. 정강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한 후 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어르신은 올 한해 총 400여 명에 이른다. 이 중 방문요양사업은 30여 명이 봉사과 나눔의 정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따뜻한 사회복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방문요양 지원사업은 대상자 등급을 심사하고 보호사를 파견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내가 직접 참여한 여성화가 어르신과의 인연이 깊어요. 그림을 그리지 못할 정도로 나빠진 건강과

일상을 회복하여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제는 부부가 건강한 모습으로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의 사무실 한 칸에 화가의 그림이 걸려있다. 그림 속 주인공은?

“부모 자식 간 관계도 복원되어 편안하고 행복한 한 가정을 다시 볼 때 한없이 기쁘죠. 내게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람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대상자와 소통하고 친밀도를 높이고 관계를 개선하는데 보통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결코 그들을 외면할 수 없다.” 국 이사장이 전문가 이상의 마음과 자세로 만들어온 아름답고 소중한 순간을 잠시나마 그려본다.





‘새로운 보금자리 - 모두와 함께!’

정강센터는 작년 10월 1일에 현 장소로 이전했다. 직원 사무실 2실, 교육실 2실, 휴게시설 1곳 등을 갖추고 있다. 사무실 직원은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 전체가 깨끗하고 쾌적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하나로 문을 연 ‘카페사말’은 몸에 좋은 따뜻한 쌍화차, 맛있는 커피 등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음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멋진 음악 감상은 덤이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약 400여 명, 재가방문요양사업은 3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 맞춰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나눔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제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며 “각각의 사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진행하며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인 소통과 유대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고 설명했다.

국정숙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2급 사회복지사, 성폭력전문상담원, 심리상담사, 학교폭력상담사 등 다수의 상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여 사업운영과 활동에도 직간접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23년~2024년 금광초등학교 총동창회장을 역임하며 모교 사랑 실천과 동창회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5년 12월부터 군산에서 유일한 ‘군산시 치매 후원인 제1호’로 선정되어 3년 동안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볼

계획이다. 개인적으로 책임감이 무겁다고 한다. 2호, 3호 후배들을 위해 모범 사례를 남겨야 한다며.

여기까지 오는데 인생의 반려자이자 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며 함께하는 남편의 도움이 컸다고 살짝 귀띔한다. “남편께서 나에게 큰 선물을 주신거죠. 너무 감사하죠. 남편의 사랑과 도움으로 새롭게 단장한 정강센터는 어르신 모두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인생의 전환점!’

51세. 늦깎이로 시작한 사회생활, 그리고 봉사활동, 사회 복지사업으로 이어진 그의 성격은 “자신이 꼭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심사숙고한 목표나 결정은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요구되는 인내와 포용은 항상 짝궁처럼 그의 몫이다.

“아들 둘은 독립하고 유명한 대기업에서 근무해요. 잘 자라준 아들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많이 힘들어했고 나에게 의지를 많이 했죠. 6~7년 정도 되는데 인상 한 번 안 쓰고 남편의 얘기를 들어주고 받아주었다. 당시 내 일을 하면서(상담,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등)도 남편을 지켜준 것 같아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고 많은 것들이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올 때, 남편은 내게 모든 걸 이해해주고 받아줘서 정말 고맙다고 고백했어요. 오히려 내가 남편에게 감사했다. 아마

그때부터 내 인생의 유일했던 큰 고비를 넘기고 사회복지사업의 전환점이 된 것 같다.”고 가족에 대한 짧은 소개와 사랑을 전했다.

“정강센터는 일반 일자리 지원기관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신과 책임, 그리고 전문적 역량으로 전문기관 이상으로 건실히 발전하고 지역사회와 어르신들로부터 인정받는 정강복지센터로 우뚝 자리매김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국정숙 이사장은 “사회복지사업을 평생 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정강복지센터에 참여하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잘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어르신들을 뵙겠습니다.”라고 그가 제일 좋아한다는 장미꽃처럼 미소지며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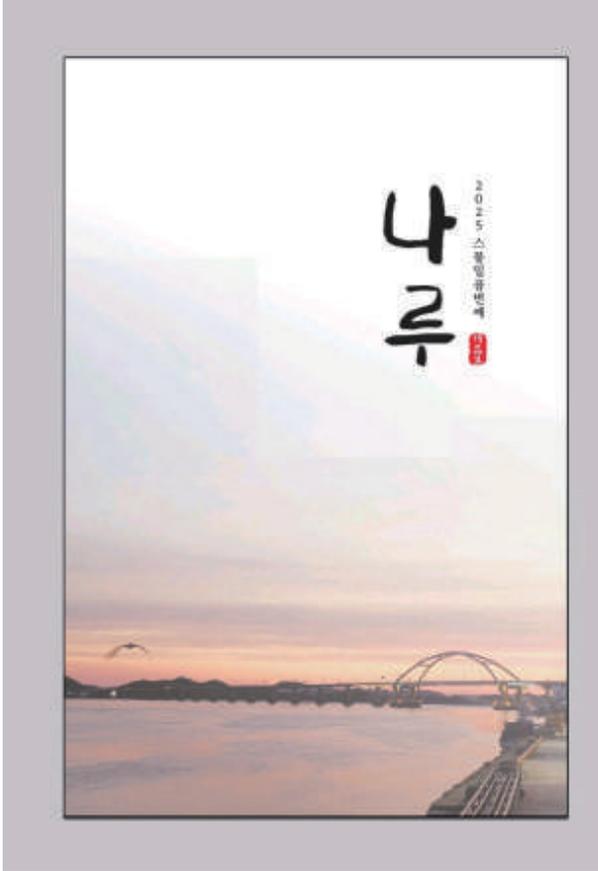


(사)정강복지센터
군산시 구암3.1로 30
(현대메트로타워2차 상가 3층
문의 // 063-446-8233
010-8290-5277

군산여류문학 '나루'와 함께

나루, 스물일곱의 청년이 되다.

글 | 박세원
hamp38@hanmail.net



나루 회장 박선희

「2025년 을사년 시작은 혼돈 속에서 하나 됨을 보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상식 밖의 일들로 넘쳐나고 악몽 같은 여름 무더위는 그칠 줄 모르고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우리는 그 강을 잘 건너와 이제는 가을 중턱에서 지나온 시간을 바라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생활 속에서 문학을 찾고 글을 가꾸며 피폐해진 마음 발에 구절초 향기와 형형색색 노래하는 코스모스밭을 일구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 기쁘기까지 합니다. 계절은 가을을 지나고 '나루호'는 스물일곱 청년 때를 맞아 내실 있고 알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한문학 가을호에 '나루'가 소개되고, 10월에는 처음 맞는 문학 강연도 있었습니다. 현재 채만식 문학관에 시화전 또한 수준 높게 전시되고 있어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올해의 자랑은 훌륭한 회원을 영입한 것입니다. 이순화, 정미란, 박세원 씨는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 여간 기쁜 것이 아닙니다. 이번 나루호는 이향아 고문님 시 두 편과 회원님들의 시 75편, 수필 7편, 소설 1편 등 다양한 장르에서 주옥같은 글들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바람은 우리들만의 글 잔치가 아니라 글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며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는 배환봉 선생님과 성하람 선생님의 쾌유를 빌며 잠시 멈추고 있는 회원님들의 승선을 기다립니다.

2025년 10월 나루 회장 박선희

나루 동인지에서 회장 박선희 시인의 글을 빌려 왔다. 박선희 회장은 40년째 군산 대야에서 꽃과 정원을 가꾸는 꽃의 여인이다. 꽃잎이 열리는 순간, 꽃잎 끝에 매달린 물방울을 놓치지 않고 사진에 담고 글로 표현하는 재주를 가진 시인이다. 그녀 곁에 다가 가면 은은한 모카 향기가 난다. 꽃의 향기를 따라 그녀 주변으로 문학소녀(여인)들이 모여든다. 지독한 무더위에 땀방울을 씻어 내며 한 송이 꽃을 심는 시인 박선희는 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나루호라는 배를 힘껏 저어간다.

군산여류문학 나루는 1998년 1월 14일 창단식(회장 배환봉)으로 지금까지 27회 동인지를 발간하며 힘차게 달려왔다. 회원은 고문 이향아, 원로 회원 배환봉 님과 20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문인 활

동을 하고 있다.

나루 회원들이 모이는 매월 3주 목요일이면 월명동 동네가 떠들썩하다. 문단의 거목 선배님들을 만나 작가들이 써 온 글을 열어 보이며 합평을 듣는 날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예외 없이 날카로운 비평과 칭찬이 선을 넘나든다. 선배님들의 관심이 더 큰 글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지난 4월에는 서천 월하성에서 1박 2일의 문학기행을 실시하였다. 대부분 손자를 둔 할머니들이 맞는데 그날 참석한 회원들은 찰랑거리는 파도를 보며 폴짝 뛰어다니는 소녀들이었다.



나루 회원 월하리 바다에 젖다.



집 나오면 그저 좋아



2025 군산북페어에서 나루 회원들 군산 문학 알리기



바닷가로 뛰어 들까요.(서천 월하성)

25년 8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무더위 속 열린 군산 북페어 축제에 군산문학 코너를 마련하고, 책방 투어, 시 낭송 등 그녀들의 열정을 말할 수 없는 사고를 친다. 선배 작가님들이 직접 독자와 만나 책의 특징을 안내 해 주기도 하고 사인을 해주면 독자들은 무척 기쁘게 책을 받아 든다.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김형수(부여 신동업 문

학관장) 작가를 모시고 채만식 문학관에서 문학 강연을 열었다. 많은 회원이 참여하여 ‘문학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왜 문학을 키우는가, 작가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라는 내용의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글을 왜 써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김형수 작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필자와 동갑의 나이로 같은 고향이라는 점이 더욱 친근감을 느껴졌다.



문학관 투어



제6회 군산문학대축제



군산 여류 문학 시화 축제



중견 작가와 신입들의 합평 시간



2025 군산시 2025 군산평생학습센터에서 수상하는 전재복 회원



칭찬 말고, 비평을 나루 합평회

금번 10월부터 12월까지 채만식 문학관에는 '마음 한 폭 담아내 다'라는 주제로 회원들의 시화 족자가 전시되고 있다. 재주꾼 윤영미 시인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잉크물이 화폭을 적시며 노닐었다. 재주는 타고 난다는데 참 신기하게 시와 글 형태가 한 폭의 그림이 되어 화면을 짝 채웠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보석 같은 글들로 회원들의 출간이 이어

졌다. 전재복 시인의 한영 시선집 『푸를 비를 맞고』, 이순화 시인의 『사랑이었다』, 정미란님의 『ESSAY IN MAY』, 김은경 시인의 『흔들리지 않을 상처를 위하여』, 이경아 시인의 『사유의 매듭을 풀다』, 백승연 시인의 『빈 집』, 박세원의 『다시, 시작의 자리에서』 등이 있다. 올해의 동인지에 실린 백승연 시인의 시 <자국>을 소개 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평산 문재인 작가와의 만남



타류의 혼을 찾아서(디카시 전시)



김형수 작가,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 강연을 마치고



군산시간여행 축제의 밤 시낭송으로

<자국>

비가 지나간 자리는 자국을 남긴다
간 막이 유리에 비낀 빗물은 얼룩으로 남는다

산북동 동아아파트로 올라가는 길목에 버스터미널이 있다
동아아파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정류장을 이용해
출근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뒷자리에 종종 발자국이 보인다

간밤에 주먹을 휘둘렀던 권력자가 폭력을 부정했지만
폭력의 자국은 지워지지 않는다



논이 풍경이 되다-농부가 만든 심의 공간 NON FARM

글 | 정미란
jmr6114@hanmail.net

드넓은 호남평야가 펼쳐진 논 한가운데 카페가 있다. 군산의 농장 카페다.

한적한 도로를 따라 이곳에 닿는 순간, 익숙한 일상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진다. 사방을 감싼 논은 소음을 밀어내고, 바람에 흔들리는 벼와 햇빛의 자연이 가슴 가득 공간을 채운다. 이곳에선 커피 향보다 논으로 둘러싸인 들판풍광이 먼저 다가온다.

평생을 휴과 함께 살아온 부부가 사람이 좋아 만든 공간, <NON FARM 엔오엔 팜>은 군산 대야의 복교리들판에 우뚝 서있다. 카페란 이름대신 농장을 뜻하는 엔오엔 팜인 이유가 궁금했다.





"시골에 사람도 없고 묵묵히 일만 해야 되고 쓸 곳도 없는 데다 시내로 나가야 차 한 잔이라도 마실 수가 있는 것이 아쉬웠죠. 남편과 내가 농사만 짓다가 끝나느니 여기다가 꽃도 심고 사람이 쉬고, 와서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우리 큰 딸하고 의논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편하게 와서 미숫가루, 시원한 식혜 한 잔 마시고 가는, 카페보다는 사랑방 같은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희 남편이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요"

자신의 땅에 엔오엔 팜을 만든 문현순 대표(66세)는 40여 년을

농사로 살아온 천상 농부다. 그녀를 만난 날도 대야장에 다녀오는 길이라며 웃는 모습에서 부지런함과 건강이 넘쳐 보였다.

카페입구에 들어서면 공간을 만든 이의 마음이 먼저 보인다. 잔디 위에 놓인 테이블, 아이와 반려동물을 위한 여유로운 공간, 휴노이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장. 작은 삽과 장난감 차가 놓인 모래 놀이터에는 아이들의 웃음이 채워진다. 커피를 마시는 어른의 시간과 아이들의 놀이가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풍경이 이곳에서는 낯설지 않다.

1층 건물 안 카페로 들어서면서 또 한 번 '엔오엔팜'만의 분위기에 마음이 풍성해진다. 대부분의 카페에서 볼 수 있는 메뉴판이나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 대신 첫눈에 들어오는 것은 쌀과 콩, 들깨를 비롯한 각종 잡곡과 제철 농산물들이다.

영농인이 운영하는 공간답게 이곳은 카페이면서 동시에 작은 농산물 장터다. 깔끔하게 포장된 농산물들은 단순한 판매상품이 아니라 엔오엔팜이 운영하는 <수빈 농장>과 주변 자작농에서 수확한 농촌의 시간을 고스란히 전한다.





<엔오엔 팜>의 메뉴 역시 농가의 일상에서 출발한다.

요일마다 달라지는 호박죽과 팔죽, 깨죽은 달콤한 디저트라기보다 속을 편안히 채워주는 한 끼에 가깝다. 깔끔하게 포장된 썩떡과 썩인절미, 옥수수과 강정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이곳의 기억을 이어주는 작은 선물이 된다. 직접 만든 꿀로 맛을 낸 미숫가루는 자극적이지 않은 달달함과 깊은 고소함으로 이 집의 시그니처가 되었다. 안주인인 문대표의 손맛이 담긴 김치는 소량 판매로 만날 수 있어 정겹고 이웃

농가에서 건네받는 소박한 선물처럼 따뜻하다.

음료를 들고 2층에 오르면 비로소 이곳의 진짜 풍경이 열린다. 넓은 통창 너머로 펼쳐지는 논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다. 인위적인 장식대신 사방을 채운 논 풍경 바라보며 사람들은 대화를 멈추거나 목소리를 낮춘다. 하늘과 들판이 만들어내는 느린 시간 속 풍경이 공간을 채우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내려놓게 된다.

수빈농장



이곳의 논은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봄이면 샛노란 유채꽃이 들판을 가득 메우고, 여름에는 붉은 양귀비가 햇살 아래 화려하다. 가을이 오면 주황빛 메리골드와 분홍과 흰색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몸을 맡기며 한 해의 끝자락을 알린다. 이곳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계절의 변화를 먼저 전하며 꽃과 함께하는 심의 시간으로 이끄는 이유다.

논으로 둘러싸인 자연 속 수천 평의 꽃밭 또한 꽃을 유난히 좋아하

는 문대표의 생각이었던다. 카페를 만들기 전부터 논에 수레국화를 심었고 2023년 카페가 문을 연 후 직접 심은 꽃들이 입소문을 타고 사계절 꽃명소가 되었다고 말하는 그녀의 표정이 꽃만큼이나 환하다.

"꽃 피는 봄을 사람들과 더 즐겁게 나누고 싶어서 '양귀비 축제'를 열었어요. 작년엔 군산출신 탤런트 김성환과 구희아를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나도 좋더라고요."



문대표는 올해에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양귀비축제를 열고 싶다는 바람을 말한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녀는 농사일, 카페 운영, 집안 살림에 더해 늦깎이 대학생으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 보이는 그녀가 행복한 시간은 언제일까 궁금해 질문한 내게 이렇게 대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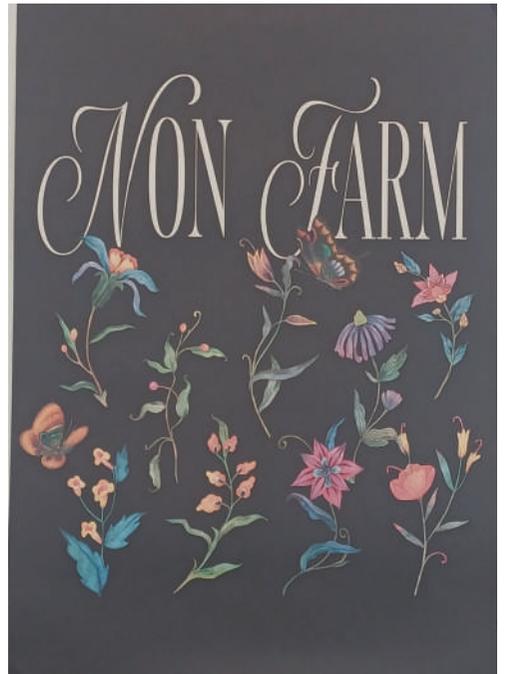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몰랐던 걸 알게 될 때 너무 기쁘죠. 바쁘지만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서 감사하고.”

한 계절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는 땅의 표정을 닮아서일까. 편안한 그녀의 표정 속에 농사로 단련된 건강한 삶의 무게가 동시에 전해진다.

도시의 카페가 ‘머무는 장소’라면 엔오엔팜은 ‘쉬어가는 풍경’이다. 농사가 일상인 공간에서 이곳만의 메뉴로 도시와 농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소비와 생산이 한자리에 놓인다. 빠르게 소비되고 사라지는 유행의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 쌓일수록 더 깊어지는 곳이다. 사방으로 펼쳐진 들녘을 바라보는 시간, 드넓은 논 한 가운데 자리한 엔오엔팜은 자연 속 침터처럼 다가온다.

대야의 들판 한가운데서 만난 카페는 커피가 일상이 된 시대에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다.

침이란 무엇인가.



NON FARM(엔오엔팜)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신당촌길 61-18

- 운영: 카페 + 농산물 판매 + 체험 공간
- 아이, 반려견 동반 가능, 주차장 있음
- 정기휴무: 수요일, 영업시간 10:00-18:00

원어민 강사진 / 조연옥 중국어학원 조연옥(趙連玉)원장

글 | 오성렬
poi3275@naver.com



나운동 유엔미프라자에 소재한 중국어학원(원장 조연옥)은 군산은 물론 전북의 다수 언론 매체에서 소개했을 정도로 지역의 대표적 교육브랜드가 되었다. 조 원장의 학원이 이토록 독보적 성장을 이룬 데에는 한족(漢族)원어민의 우수한 강사진,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원장이 군산에 정착한 것은 그녀 나이 50대 초반 무렵이던 2007년도, 중국 길림성 출신인 그녀는 1970년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왕청현 동광진 중심소학교 교장을 비롯하여 예술유치원 원장, 인민정부교육 판공실 원장 등 45년 여의 경력을 지닌 교육 전문가다. 지난 2002년도 부산국제교류부와의 인연으로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그녀는 이후 모 초등학교 교장의 초청으로 군산을 찾은 것이 군산 정착의 계기가 되었다.

살고 있던 베이징(北京)을 떠나 낯선 땅 군산에 정착한 2008년도, 나운동 현대2차 상가에 학원을 개원했을 당시 원생은 단 6명이었다. 평생 학원을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개원에 따른 까다로운 행정 절차도 힘들었거니와 무엇보다 한국어를 모르는 언어 장벽의 고충이 컸다. 설상가상으로 뜻하지 않은 수해를 입은 등 초기의 고생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타고난 독심과 부단한 노력으로 한국어를 배우며 본명 빈(彬)을 한국 정서에 맞는 연옥(連玉)으로 개명하는 등 현지 적응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단기간에 걸쳐 학원생이 수십 명으로 늘게 된다.



100% 중국 원어민 강사진
조연옥중국어학원

프로그램 내용
수준별 1:1 맞춤 지도
중국유학생 연수, 추천, 상담
학교지배열원 추천
글로벌 장학생 해외 연수생
일반생활회화 지도
비즈니스, 국제무역, 회화
HSK 3~6급 지도
인문급수 8~3급

학원 수상 내역
HSK 6급 14회 합격
2016~2024년 HSK 합격자 누적 125명
한국중국어회화 구연대회
(대상 1명, 대상 20명)
국제대회 1회 수상하여
한자 1명 3등, 2등 2명, 3등 12명
2006~2019년 글로벌장학생 130명

중국유학생 32명 배출
북경대학 3명
중경민족대학 3명
북경언어대학 3명
외국어대학 4명
중경민족대학 3명
길림대학 2명
한양대 1명
성금관대 4명
부산외대 2명
중경우원대학 1명
북경언어대학 1명
서안사범대 1명
화문대학 1명
광둥대 2명

수강료 안내	입문반	1월 1시간	월 15만원
	HSK(자격증반)	1월 1시간	월 18만원

초급 **중급** **고급** **회화** **문법** **HSK (자격증반)** **중국유학**



2013년도 들어 그녀는 유엔미프라자로 학원을 옮겼다. 사무실 및 강의실로 5층 전체를 다 사용할 정도의 규모로 성장한 학원은 기초반, 인문반, 초급반, 중급반, 3급 4급 5급 6급반 외에도 성인 회화반과 무료수강반(화요일)에 이르기까지 세부적 교과과정을 수립하고 강의를 진행, 3개월이면 기초 회화가 가능할 정도의 강의력을 자랑하고 있다.

조 원장은 군산부설초등학교의 경우 15년에 걸쳐 재능기부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군산고, 신흥초,(11년), 진포초(16년), 월명중(2년), 신평초(2년)를 비롯하여 일부 교회에도 일요일 강의를 하는 등 요청이 있으면 기관, 단체를 가리지 않고 중국어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조 원장이 한국행을 택한 것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생전 어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북 출신으로 간호병이었던 그녀의 모친은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중국의 부상병 군인을 치료하면서 사랑이 싹텄다는데 이후 중국으로 돌아간 그 군인을 찾아 북한 탈출을 감행, 적극적으로 다시 만나 결혼에 성공했다 한다. 하지만 모친의 시집살이는 혹독했다. 한족인 시어머니가 조선족을 멸시해서 모친이 조선인임에도 조 원장이 조선어를 전혀 배우지 못한 것도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오로지 중국말만 쓰도록 강

요했기 때문이다.

조 원장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작년 '전북학생 및 일반인 백일장'에서 일반부 전북특별자치도문인협회장상을 수상한 그녀의 글에 절절히 잘 드러나 있다. '6월의 어머니께'라는 제목의 편지 형식 글에서 그녀는 "어머니,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죠? 6월 어머니의 생신 달이 되면 더욱더 그리웁습니다. 어머니는 촛불처럼 자신을 희생 하시면서 이 딸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주셨습니다. 타향에서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과로로 인하여 몸이 아플 때, 우수 교사 표창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부르고 싶은 이름은 어머니였습니다"

"60년대 굶주린 생활 속에서도 초등생인 저에게 늘 아침마다 주먹밥, 구운 감자를 가방에 넣어 주시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당부하시고 사범대학에서 4년 공부할 때 매월 두 차례씩 2백리 길을 오르내리면서 미숫가루와 누룽지를 가져오시어 학습에 열중할 수 있게 응원을 주셨지요, 또한 첫 교사로 부임받은 후 음악 수업을 잘 하지 못할 딸이 걱정되어 매일 아침 오르간 손지법 연습을 시키고 저녁에도 오르간을 집에 싣고 가 하루도 빠짐없이 3개월에 걸친 교습으로 고급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학교 관리자의 능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05년 국가 글로벌국제교육프로그램 추천으로 제가 뉴질랜드로 가게 될 때 어머니께서는 저의 팔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딸아, 너의 몸엔 조선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왜 서양 나라로 가려고 하느냐, 엄마의 유언이라 하시면서’ 우리 민족인 남한으로 가서 우리 한국 아이들에게 지식을 넓혀주면 민족통일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그 말씀을 쫓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6월18일은 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고향 안아주시면서 ‘엄마 걱정은 말고 학생들 가르침에 게으르지 말아라, 엄마가 보고 싶고 외로울 때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꼭 안아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중략)

“그리운 어머니, 2019년 예기치 않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하늘과 바다의 교통이 차단되어 어머니의 임종도 못 지켜 매일 속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와의 약속 상기하면서 서툴지만 엄마가 좋아하시던 한글로서 편지를 쓰면서 아름다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외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생신이 들어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 6월, 하늘이 높다 한들 바다가 깊다 한들 어찌 어머니의 깊은 정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라면서 사무치는 심정을 술화하고 있다.



강의 중인 조원장



원어강사(왼쪽부터) 주연희강사, 조연옥원장, 정영란강사



강의 중인 조원장

교육을 통한 사회봉사로 중국어 보급의 저변확대

조 원장은 수준별 1:1 밀착 지도와 중국 유학생 연수 추천, 상담 및 학교 간 자매결연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장학생 해외연수, 일반 생활 회화, 비즈니스, 국제무역 회화와 HSK 3~6급 지도, 한문 급수 8~3급 등을 비롯하여 2026 겨울 무료 특강으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매주 화요일 저녁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교육프로그램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최다 중국어능력시험(HSK) 합격자 및 글로벌 장학생 배출

어학이 경쟁력인 글로벌 시대, 최근 들어 중국어 회화 가능자 및 중국어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중국어 스펙을

쌓으려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군산 최다 중국어능력시험(HSK)합격자와 수강생을 배출하고 있는 조연옥 학원은 중국 유학생 32명(북경대3, 중앙민족대6, 북경언어대4, 외국어대4, 길림대3, 한양대1. 성균관대4, 부산외대2, 중경우전대1, 서안서북대1, 하문대1, 절강대1, 기타1)의 입학 실적을 거뒀다.

또한 2008~2026기간 동안 HSK 6급 자격증 취득 23명, 3~6급 141명 및 전국중국어회화 구연대회에서 금상 11명, 은상 20명 수상을 비롯하여 글로벌장학생 160여 명을 배출하였으며, 올해 1월 군산대 학생이 높은 점수로 HSK 6급을 취득, 2명이 중국할빈공과대학에 합격하는 등 파이팅 넘치는 출발을 하고 있다.

집무실에서 조연옥 원장



지난 17여 년, 조연옥 원장은 군산을 넘어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교육자로 발돋움했다. 2007년도 당시 문동신 시장의 표창을 시작으로 군산대 총장상, 북경언어대 지도자상, 국제문화교류 대회 우수지도자상, 전주교육대 총장상,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상, 전북교육감상을 비롯하여 자랑스런 한국 인물대상, 세계 명품교육부문 브랜드상, 국회의원상, 국회교육위원회 교육부 문 대상, 전북교육발전유공표창 외에도 그녀에게 주어진 수많은 상들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18년 전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군산에 정착하여 집요한 노력으로 이제 군산에서 중국어 하면 조연옥, 조연옥 하면 중국어를 떠올릴 정도로 어학원의 위상을 구축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한국시민권을 취득한 조 원장은 이제 한국어도 5급을 마치고 최고 6급을 공부 중일 정도로 능숙하게 구사한다.

교육을 통한 친선 가교 역할로 한 중 우호 증진에도 앞장서고

있는 조연옥 원장,

그녀는 지금에 이르는 소회를 이렇게 밝힌다. “우리 원은 2018년부터 학원 자체적으로 교육 개혁을 했습니다. 첫째, 회화 중심, 둘째, 해외글로벌 연수특강반 준비, 셋째, 쓰기 및 듣기 훈련 강화, 넷째, HSK 자격증반 강화로 자격증 취득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중국인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 중국어를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이 결실을 거두도록 학원을 믿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을 따뜻이 안아주라’는 어머니의 유지(遺志)를 가슴에 새기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 차원의 교육에도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그녀의 노력으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경제적 협력에 따른 우호 증진이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학원의 일취월장 성장이 같이하기를 기대해본다.



조연옥 원장 프로필

- 길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 연변대학 사범과 졸업
- 중국문화부 소년아동조형예술학회 고문
- 전북 새만금중국문화원 부원장
- 한국다문화이주여성협회 대표(중국)
- 사)자치분권포럼 다문화위원장
- 군산시 초·중·고 중국어 특강강사

조연옥 중국어학원

군산시 나운동 하나운로70
(유엔미프라자 B동5F)
문의010-7615-8838

손으로 짓는 삶, 한복 디자이너 윤은경

김밥집에서 다시 만난 일의 의미

글 | 이영미
군산도시활성화연구소대표
ycm1022@hanmail.net



그
녀
의
하
루
가
시
작
되
는
공
간

윤은경의 손은 늘 바쁘다.

한복의 선을 만들던 손은 이제 김밥을 말고 있지만, 그녀가 손으로 짓는 삶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윤은경은 자신을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

시골에서 자라며 아무 생각 없이 뛰놀던 어린 시절, 삶은 그저 즐거운 것이었다.

그 감각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고, 다만 다른 모습으로 이어져 왔다.



한복 디자이너 시절, 작업실에서의 윤은경

의류학과를 졸업한 뒤 그녀의 첫 직장은 유명 한복 디자이너의 작업실이었다.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로얄부띠끄와 삼성동 코엑스 아케이드. 그녀가 근무하던 곳은 상위 1% 고객들이 찾는 디자이너 숨이었고, 결혼을 앞둔 재벌가와 유명 연예인들이 한복을 맞추기 위해 드나들던 공간이었다.

“저는 막내 디자이너였어요.”

그곳은 전통한복만을 고집하던 곳이었다. 86아시아게임,

88올림픽 공식 한복 디자이너였던 터라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갔다.

그녀는 그 현장에서 단순히 옷을 만드는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었다.

“부자들의 행동을 가까이서 봤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존중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요.”

그녀가 배운 가장 중요한 철학은 분명했다.



그녀가 몸으로 배운 전통 의상과 절제



전통을 뛰어넘는 디자인은 없다. Hanbok은 화려하지만 절제되어 있고, 선은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다. 그 시기는 그녀에게 우리 옷의 미감과 태도를 몸으로 익히던 시간이었다.

맞춤Hanbok을 입은 고객이 만족해 다른 가족을 소개해 줄 때, 그녀는 디자이너로서 큰 성취감을 느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명한 한계도 있었다. Hanbok은 매일 입는 옷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만 선택되는 옷이었고, 직업으로서의 수익 구조는 늘 불안정했다.

“Hanbok은 입어보면 정말 편하고 예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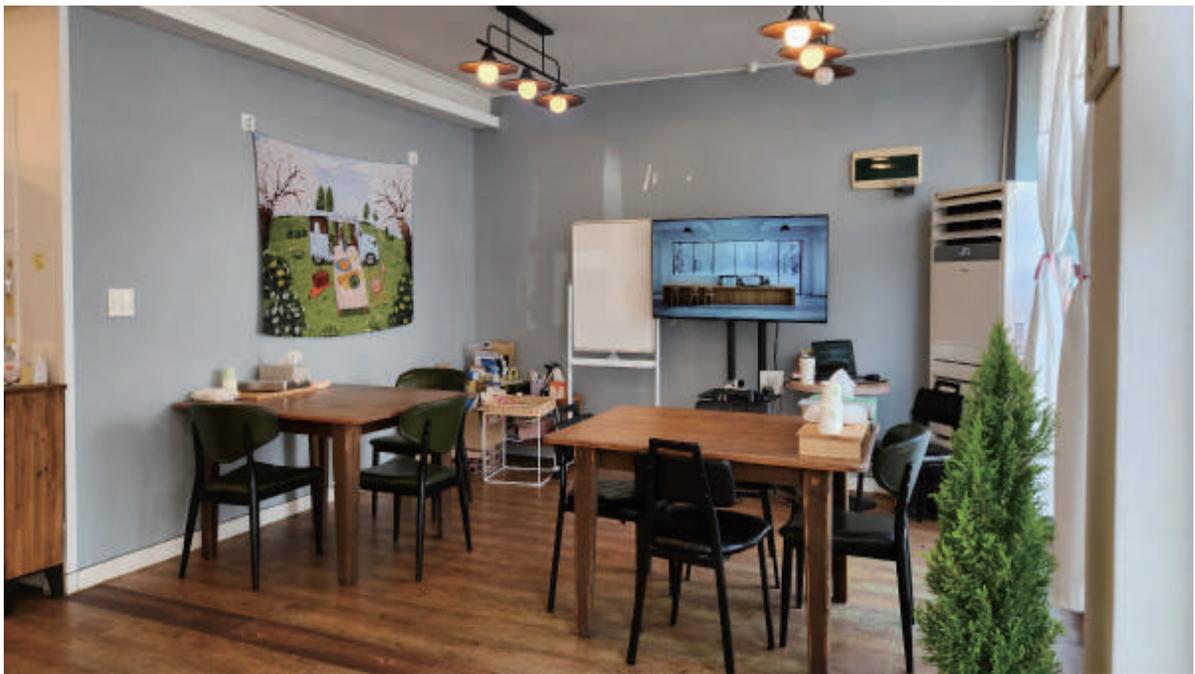
하지만 실용적이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멀어진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그녀는 믿는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처럼, Hanbok을 즐기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면 우리 전통 옷도 다시 빛날 수 있을 거라고.

이후 그녀는 호원대학교 패션뷰티학과에서 ‘Hanbok의복구성’ 시간강사로 학생들을 만났다. 남자 의복과 여자 의복을 직접 만들어보는 수업이었다. 다른 과목도 많았지만 굳이 Hanbok을 선택해 수강한 학생들이 그녀에게는 유난히 대견했다.

Hanbok은 평면 재단이 기본이다. 정확한 재단과 섬세한 바느질이 없으면 완성도가 나오지 않는다. 가르치며 그녀는 다시 깨달았다. 손으로 만드는 일의 본질을.



그녀의 인생 전환점은 49세였다.
 “인생을 100년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의 50년은 앞뒤 안 보고 열심히만 살았다면,
 이제 남은 50년은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하며 살고 싶었죠.”
 그 질문은 단순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
 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었다. 요리를 만들고, 대접하고, 배우는

일. 그녀는 서울과 용산, 분당을 오가며 요리를 배웠다. 변화는 두렵지 않았다. 그저 무엇이든 해야 하는 시기였고,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감각을 스스로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꼬마김밥은 늘 집에서 만들던 음식이었다.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찾을 것 같지만, 결국 가장 자주 떠올리는 것은 집에서 먹던 익숙한 맛이였다. 그렇게 ‘한입꼬마김밥’이 시작됐다.



김치우동



짜장떡볶이



쫄면



꼬치어묵당



집에서 먹던 익숙한 맛에서 시작된 한 입 김밥



대표 메뉴는 꼬마김밥이다. 꼬마라고 부르기에 조금 큰 크기지만, 손에 쥐었을 때 부담 없고 속은 단단하다. “너무 맛있다”는 말은 늘 조심스럽지만, 지나가다 우연히 들른 청년이 “벌써 세 번째예요”라고 말할 때 그녀는 확신한다.

정성을 다하면, 고객은 먼저 안다.

디자이너와 창업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심플하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데서 진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는 김치를 참 잘 담그셨다. 그녀는 종종 말한다. “엄마를 닮았나 봐요.”

한복도 손으로 만드는 일이었고, 음식 역시 마찬가지다. 그녀에게 일은 언제나 손끝에서 시작된다. 손으로 만들고, 손으로 전하며, 사람의 마음까지 닿기를 바라는 일이다.

요즘 그녀는 또 다른 메뉴 개발로 분주하다.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음식. 곧 새로운 메뉴가 손님을 만날 예정이다.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는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것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타적인 마음과 건강한 정신이다. 혼자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녀가 지금 이 자리에서 김밥을 맡겨 선택한 삶의 방식이다.

한복 디자이너에서 김밥 창업가로. 그녀의 일은 바뀌었지만, 손으로 삶을 짓는 태도만큼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오늘도 그녀는 같은 마음으로 김밥을 만들고 있다.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은 따뜻해지기를 바라면서.

한입꼬마김밥

- 군산시 동지곡길14
- 영업시간 11:00-20:30

“커피엔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 ‘카페 프레이’에서 ‘체로키 커피하우스’로

글 | 이영미
군산도시활성화 연구소 대표
ycm1022@hanmail.net



“커피에는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한 문장에 이 공간의 태도가 담겨 있다.
유행을 좇기보다, 매일 마셔도 지치지 않는 커피를 고민하는 사람.
크기보다 기다림을 줄이는 선택을 한 사람.
‘카페 프레이’에서 ‘체로키 커피하우스’로 이어진 이 확장은, 성장이라기보다 책임에 가까웠다.
군 복무 중이던 20대 초반, 그는 복학 대신 커피를 선택했다.
제대 후 곧바로 커피 일을 시작했고, 23살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나운2동 주민센터 옆, 약 20평 남짓한 공간.
홀과 주방이 가까워 손님과 눈을 마주치며 일하던 곳, ‘카페 프레이’였다.
처음엔 두려움이 앞섰다.

내가 내린 커피가 손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쩌나. 그 두려움을 넘기는 방식은 단순했다. 매일 공부하고, 내려 보고, 다시 맛보는 일. 기대보다 경험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갔다. 카페 프레이는 그의 시행착오를 고스란히 품은 공간이었다. 실수도 많았고, 부족한 순간도 많았다. 그럼에도 단골 손님들은 너그럽게 지켜봐 주었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손님들이 이곳을 '아지트'처럼 여겨주었다는 사실이 가장 뿌듯했다.

“20대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카페 프레이가 떠올라요.”

그에게 프레이는 장사가 아니라 시절이었다. 확장은 욕심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혼자 일하다 보니 기다림이 길어졌고, 기다리다 돌아서는 손님들

이 생겼다.

그때 그는 선택해야 했다. 더 잘해지고 싶다는 마음보다, 불편함을 줄여야겠다는 책임이 앞섰다. 체로키 커피하우스는 그렇게 시작됐다. 체로키 로즈에서 이름을 따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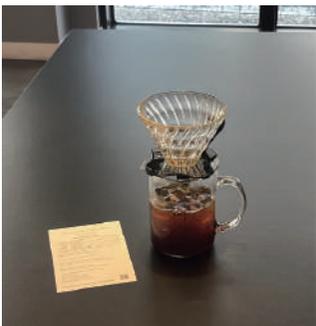
유행을 따르지 않는, 독립적인 커피숍. '우리만의 매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이름에 담겼다.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조금은 외부와 단절된 느낌을 받길 바랐다. 그래서 예쁘지만 불편하지 않은 가구를 고르는 데 시간을 들였고, 공간의 완성은 음악이라고 생각해 스피커 제작에도 신경을 썼다.

유유자적한 시간, 여유로운 호흡. 체로키가 전하고 싶은 감정이다.



그의 커피 철학은 분명하다.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 너무 강한 쓴맛이나 신맛이 튀는 에스프레소를 피하려고 한다. 아메리카노는 매일 마시는 음료이기에, 적당한 바디감과 고소함 끝에 산미가 살짝 느껴지는 균형을 목표로 한다. 원두 역시 그 기준에서 고른다. 과하지 않은 산미, 견과류와 카라멜 같은 휘앙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커피는 과테말라 산지의 게이샤 워시드. 배 같은 과일 맛과 단단한 바디감을 가진 커피다. 체로키에서 자신 있는 메뉴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그리고 에그타르트. 손님들이 시그니처로 떠올리는 건 필터 커피(핸드드립)이다. 음료든 빵이든, 혼자서 한 잔, 한 개를 끝까지 즐길 수 있는 맛.





그 기준은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
 카페를 오래 하다 보면 손님들의 시간이 쌓인다.
 대학생 시절부터 찾던 커플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
 루프탑에서 프로포즈를 하고 부부가 된 손님도 있다.
 하루에 두 번씩 들르는 동네 공무원들도 있다.
 그는 손님이 오래 머무는 것을 좋아한다.
 오픈부터 마감까지,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내다 가는 날이면 특히 그렇다.
 불편하지 않고, 공간이 마음에 든다는 신호 같아서다.
 체로키는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찾는 카페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메뉴 구성도, 가격도 높게 두지 않으려 애쓴다.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역할은 분명하다.

이 공간과 커피, 그리고 베이커리를 '믿고 선택해도 되는 것'으로 만드는 사람.
 “버틴다는 건 시간을 쓰는 일이에요.”
 그는 버티는 일을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한다.
 시간과 에너지를 녹여낸 경험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남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가 꿈꾸는 체로키의 1년 뒤 모습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늘 떠올리는 호주의 동네 카페다.
 사람들이 루틴처럼 들러 커피를 마시고, 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하루의 일부로 스며드는 공간.
 체로키 커피하우스가 그런 하루의 한 장면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그는 커피를 내린다.

체로키 커피하우스
 군산시 나운 3길 20
 0507-1314-9746
 매주 일요일 정기 휴무
 루프탑운영 12:00-21:30

“스포츠 마케팅으로 불황을 극복해야죠” 사람들이 찾아오는 군산을 만들자는 서은식 시의원,

글 | 채명룡
ml7614@naver.com



“소용·산북, 해신동은 산업 공동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어렵고 힘든 이 지역에 군산의 체육 인프라를 끌어오는 한편,
부족한 시설을 확충해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사람들로 넘쳐나지 않을까요?”
“군산시 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해 국내·외 공인대회 유치 기반을 마련하자.”라고 주장하는
서은식 시의원의 ‘지역 경제에 보탬되는 스포츠 산업 육성’ 5분 발언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5년 12월 19일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표한 이 내용은
체육 기반 시설을 확충해 스포츠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인프라 구축과 인력 배치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매우 알차고 신선한 제언이다.



지역 현안 어디든 달려가는 ‘발발이’ 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은 ‘발발이’로 소문 나 있다. 시의원으로써 지역의 현안은 물론이지만 군산시 발전과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든 달려가기에 붙은 별명이다.

그런 그가 줄어든 인구로 경기 부진의 여파를 겪는 군산의 지역 경제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스포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졌다.

“군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2025년까지 5년간 국제 및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 실적은 12개 종목, 28개 대회”라며 “이 가운데 비정기 및 일회성 개최 대회가 약 40%에 이르고 있다”

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종목은 골프, 축구, 마라톤을 비롯한 몇 개 종목에 불과하다”고 아픈 현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더 많은 종목을 개최할 수 없는 이유로 ‘시설의 한계성’ 때문이라고 아쉬워했다.

“군산시에서 전국대회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은 개인 소유 골프장, 시 소유의 축구장, 월명체육관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규격에 맞는 시설의 확충이 과제이지요.”

군산시 전체를 아우르는 시의원의 시각과 역할을 적절하게 짚어낸 지적이었다.

전국대회 유치를 하려면 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서 의원이 군산시의 현황에 대해 냉정하게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려는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군산시 체육시설은 15개 종목, 총 47개소이며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테니스장, 해양 레포츠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대회를 치르기에는 규격과 규모가 맞지 않는 시설들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대회는 못 하지만 우리 시민들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은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고 자책했다.

5분 발언의 요지는 명확했다.

“타 지자체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의 공인 수준의 체육시설 구축으로 시민들의 체육활동 기여와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부족한 예산을 마련해야 경쟁력이 생긴다

서 의원은 군산시가 낙후된 시설을 극복하려면 먼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구 분	군산시	익산시	목포시
예산(2025)	19,908,390,000	25,063,902,000	18,414,909,000
기금(2024)	127,759,000	-	2,665,964,000

익산시는 체육진흥 및 시설 관련 예산이 군산시보다 약 50억 원 더 많이 편성됐으며, 목포시는 우리 시보다 기금 조성 규모가 2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군산시는 체육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 및 기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의 주장이다.

국내의 공인 수준의 체육시설 구축과 동시에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스포츠 마케팅은 굴뚝 없는 관광산업이다. 전국 지자체는 수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전지훈련 선수단과 대회 개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남해군은 축구와 야구를 특화해 2004년 총면적 30만㎡ 규모의 남해스포츠파크를 건설,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전지훈련장으로 주목받는 스포츠 메카로 자리 잡았다.”



“목포시는 전국체육대회 개최 이후 새롭게 구축된 체육시설을 활용해 국제 및 전국대회, 전지훈련 유치로 스포츠 명품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순창군은 2024년 기준 지역별로 게이트볼장 21개, 체육관 10개, 축구장 3개, 테니스장 5개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전국대회 30여 개 개최와 전지훈련 50여 팀을 유

치한 바 있다.”

실제 성과를 분석해 대안을 모색한 자료로 삼은 점은 매우 적절했다는 평가다.

또한 “향후 군산시는 체육시설 확충 시 국내외 공인 기준 경기장 구축으로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체육 행정을 요구했다.





스포츠마케팅 전담 인력 확충 시급

“전국대회와 국제대회 유치에 대해 스포츠산업 전담팀의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그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는 서 의원의 주장도 이어졌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5분 발언이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갔다.

“목포시는 2003년부터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체육진흥과를 스포츠산업과로 명칭 변경하고 사업 발굴과 육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순창군은 2019년 조직 개편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스포츠마케팅팀에 총 5명의 인력을 보충해 스포츠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실제적인 지원 체제를 갖춘 다른 지자체와 달리 군산시는 개선이 매우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군산시는 전담팀인 스포츠마케팅팀에 전문가 팀장 1명, 임기제 2명이 전부다. 스포츠산업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었다. 또한 전담팀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군산시 주최 스포츠대회 개최와 전국 규모 대회 유치를 위한 기획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더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로부터 우수정책 포상 받은 서은식 시의원



서은식 시의원,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와 함께

5분 발언 내용, 군산시 체육 행정의 중심되길 기대

“군산시는 다양한 국내외 공인 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해 전국체전과 각종 전국대회가 군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로 마무리된 서은식 의원의 5분 발언이 사장되지 않고, 군산시 체육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그가 지적한 “순창군은 2019년 조직개편으로 체육진흥사업소의 스포츠마케팅팀에 총 5명의 인력을 보충하여 스포츠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런 실제적인 지원 체제를 갖춘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군산시는 매우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군산시는 전담팀인 스포츠마케팅팀에 전문가 팀장 1명, 임기제 2명이 전부다. 스포츠산업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었다.

또한 지속적인 전담팀의 확대를 군산시 주최 스포츠대회 개최와 전국 규모 대회 유치에 위한 기획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더했다.

“군산시는 다양한 국내외 공인 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여 전국체전과 각종 전국대회가 군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로 마무리된 서은식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이 사장되지 않고 군산시의 체육 행정의 중심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서은식 시의원(군산 나 선거구)
민원 상담 (010-3200-4499)

‘하늘로 쏘아 올린 우주의 꿈’

서흥중학교 한승호 전북과학고 합격
군산복싱체육관 10년 차, 천문과학도 희망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천문학도 꿈꾸는 Boxing Boy

한승호(군산서흥중학교 3학년) 학생은 2026년도 전북과학고에 입학할 예정이다.

교육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군산에서 전북과학고 입학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어렵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군산지역에서 단 4명 만이 합격의 기쁜 소식을 통보받았다.

한 군은 앞으로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한다. 과학고 입학은 첫 출발선이다.

가족은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큰 경사를 맞이한 셈이다.

처음 본 얼굴은 옛되고 순해 보였다.

먼저 축하를 전했다.



과학고 입학 한승호



복싱을 통해서 정신을 가다듬은 한승호



승호의 원투

“제게 복싱은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는 운동이자 스승님 같아요. 복싱을 배우면서 체력을 쌓는 건 기본이에요.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이지만)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운동을 할 수가 없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체력 또한 자연히 강해져요. 운동 효과가 꼭 정비례가 아니더라도 해본 사람은 자신이 저절로 느껴요.”

이어 “복싱은 제 공부 방식에 많은 도움이 돼요. 특히 집중력과 지구력요.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좋아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 상대(문제)와 승부를 결정해야 끝나는 것도, 복싱의 매력이자 제 공부 스타일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한 군의 대답

이 간결하면서도 아무지다는 느낌을 받았다. 공부와 복싱을 함께 즐기고 집중하는 성격과 자세가 똑 떨어진다.

한 군은 진포초등학교에서부터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다. 엄마가 먼저였고 한 군이 합류했다. 지금은 엄마와 남동생까지 같이 복싱체육관을 찾는다. 일과를 물어봤다. “학교생활과 수업에 충실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제가 좋아하는 수학과 영어, 그리고 과학도 열심히 공부해요. 특히 수학과 과학이 제 적성에 맞고 재밌어요. 그렇다고 공부만 죽여라 하는 공부벌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순수함과 여유가 느껴진다.



학교에서 발표하는 한 장면



경기에 앞서 멋진 포즈



경기장에서 한 컷

한 군은 지금까지 복싱대회에 3회 정도 출전했다.
 지난 2022년 군산대회에서 우승했고 2023년 전주대회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상대로 선전했으나 아깝게 분패했다.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군산복싱체육관 김형욱 관장이 칭찬을 아

끼지 않는다.
 대회 일정이 잡히면 훈련에 전념하고 집중하나 시간이 여의치
 않아 조금 아쉽다며 미소를 띤다. 역시 승부욕이 강하다!



김광선 전설과 김형욱 관장님과 함께



영광의 상장

화목한 가족, 든든한 응원군

“처음엔 체력이 약하고 수줍음을 타는 성격이었는데. 조금씩 운동하면서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엄마가 먼저 강요하거나 조금해하지는 않았어요. 승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알아서 하는 대로 맡길 생각이었죠. 억지로 하는 것은, 저나 승호가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승호 곁에서 응원하는 엄마의 말이다.

“아들 아빠가 직업군인입니다. 성격도 밝고 운동 마니아예요. 그렇다고 승호에게 직업적인 스포츠맨을 요구하거나 선수 생활을 바라지는 않아요. 운동을 즐기고 체력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없어요. 가족 모두가 자연스럽게 운동을 좋아하는 것 같아

서로가 공유하는 게 많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믿음처럼 한 군이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있다는 뜻이라 생각된다. 가족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든든한 응원군이다.

승호는 군산복식체육관에서 하루 평균 1시간 30분 안팎 운동한다. 게으름을 피거나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운동을 거르는 일도 거의 없을 정도로 자기 관리에 성실하다고 또 체육관 형들이 칭찬을 보낸다. “육식을 좋아해서 가족들과 함께 보통 1주일에 두세 번 정도 고기를 먹어요. 물론 우리 한식도 좋아해요. 음식은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한창 먹을 땐가 봐요.” 어느 청소년들과 다름없는 친근하고 평범한 모습이다.



한승호와 엄마



가족과 함께



혼자서도 잘 놀아요



모든 건 제가 스스로 어떻게 하나에 달려있었죠



늦선 인터뷰에도 금방 적응하는 승호 학생

새로운 도전, 천문과학도를 향해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넓고 신비로운 우주나 천문학도 독서를 통해 접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과학고를 선택했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분야를 정했으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앞으로 조금 변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천문학 쪽인 것 같아요” 살짝 웃으며 낮지만 강한 의지를 담은 목소리로 답했다.

한승호 군은 어릴 적에 복싱을 만나고 지금까지 좋아하고 즐기며 운

동한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에 소홀하지 않으며 꿈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 군은 “전북과학고 입학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더욱더 노력해서 제 꿈을 꼭 이루고 싶어요.”

옛날에 SF소설이나 영화에서 신비롭게 보았던 달나라나 우주여행 관련 소식이 이제 일상이 돼버린 시대이다.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누구나 어린 시절에 품은 꿈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한다.

좋아하는 복싱과 우주를 향한 꿈을 쫓는 한승호 군의 건투를 빈다.

군산시민예술단

박문원 단장의 인간승리 스토리

글 | 오성렬
poi3275@naver.com



아코디언 연주 중인 박 단장

필자가 지난 16년에 걸쳐 매거진군산을 통하여 만나 본 군산의 인물들만 해도 일추 5백여 명에 이른다. 정치인, 경제인, 교육자, 문화예술인, 자영업 등 다양한 분야의 천태만상 삶을 취재하면서 자연스레 인맥도 넓어졌다. 그 많은 사람들은 생김 모습만큼이나 삶의 모습도 제각각이었다. 때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별난 경우도 있었는데 그 모두가 필자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고 있다.

필자가 최근 알게 된 군산시민예술단 박문원 단장(75)의 우여곡절 인생 스토리도 그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체구는 작지만 다부진 입매와 살아있는 눈빛부터가 범상치 않다. 나운동 26빌딩 건너편 쪽 도로변에 있는 '남성광고기회사'가 그의 사업체이다. 타고난 똑심과 재능으로 사업적 기반을 잡으면서 실력 있는 아코디언 연주가가 되어 예술단 단장에 이르기까지 그가 걸어온 삶의 여정은 그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그는 고창 대산면 출신이다. 조부님은 서당 훈장이셨지만 집이 너무도 가난했다. 초등학교 졸업 후 군산중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당장 군산까지 갈 교통비조차 없는 집안 형편으로서는 꿈같은 얘기였다. 어쩔 수 없이 고향의 대성중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글쓰기를 배웠고 재주도 있었다. 중 2 때 쓴 단편소설이 당시 학원사 잡지에 실렸다. 뜻밖에도 익산 남성고등학교에서 문예부문 특기생으로 입학할 허가를 했다.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신문 배달 등 고학을 하면서 책과 교복은 빌려야만 했고 잘 곳이 마땅치 않아 이곳저곳을 전전하거나 학교 양호실을 이용하는 등 어린 나이 그의 학교 생활은 그야말로 풍찬노

숙의 상황이었다. 필체가 좋아 선생님의 출석부 글씨를 도맡아 쓰기도 한 그는 학원사의 학생 기자로 활동했다. 학교에 매점이 설치되면서는 학교 측의 배려로 매점의 운영 일을 맡으며 다행히 학비도 면제 되었다. 학교 관사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세계문학전집 등 많은 책을 읽으며 문학적 소양을 길렀다. 객지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가난했던 집으로부터의 지원은 단 한 푼도 없었지만 그는 결코 환경을 탓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서 성공하리라는 불굴의 뜻심으로 그 어린 소년은 더욱 단단해져 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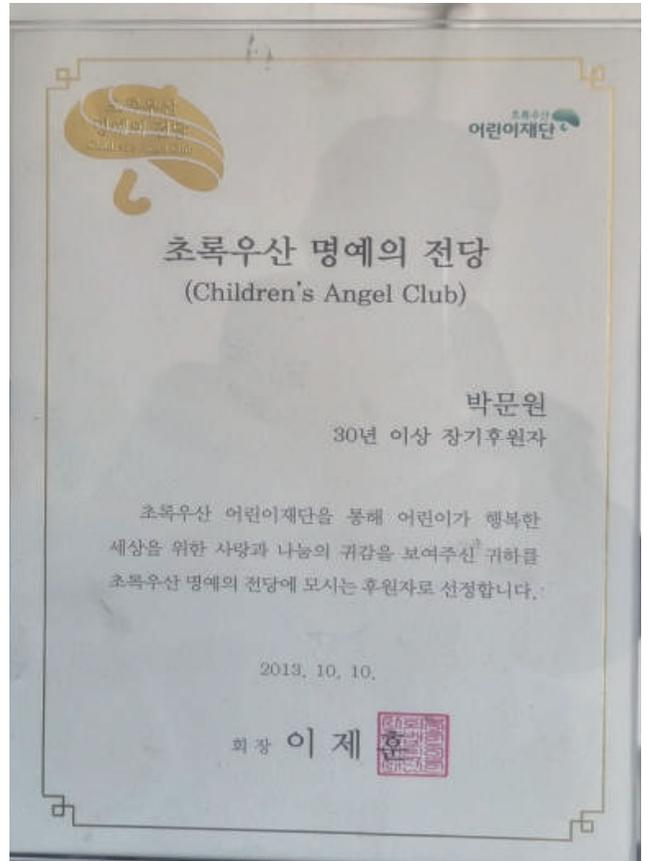
졸업 후 그는 익산 삼남극장에서 간판 그리는 것을 배웠다. 이것은 후일 그의 인생에 변환점으로 작용한다. 손재주가 남달랐던 그는 군 입대 후 부대의 모든 간판을 도맡아 그렸다. 운전병으로 복무하면서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 일본어 언어 자격 3급도 취득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교정직 공무원 시험 정보를 알게 된 그는 군 생활 중 응시, 제대 한 달 후 합격 통보와 함께 1967년 군산교도소 근무 발령을 받기에 이른다.

교도소 재직 중 그는 부업으로 광고업을 했다. 필체도 좋았고 간판 일도 해왔던 터라 그의 적성에 딱 맞는 일이었다. 교도소는 특성 상 시설물이 많다보니 그에 따른 각종 간판, 표지판, 안내판, 부착물 등이 대량으로 필요

한 기관이었다. 그는 자신의 직장인 군산교도소는 물론 타 지역 교도소에서도 주문이 들어올 정도로 신망을 얻어 일거리가 늘어갔다.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의 교도소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수주 금액만 해도 최소 수십 만원에서 수천만, 때로 억대를 상회하기도 했다. 그가 이렇게 사업적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철저히 발주처에 신뢰를 쌓은 덕분이었다. 그는 지금도 약속과 신용을 인간관계에서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철저히 약속을 지킨다. 사업 시작 이래 지금까지 이 원칙을 단 한 번도 어겨 본 일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군산의 대기업인 S제강을 비롯해서 법무부 관련 정부기관과도 오랜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최복암 후원자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장기후원자 명예의전당 후원자 증서



재직 중 타고난 향학열로 방송통신대 국어과를 졸업하고 군산대 대학원에서 고대소설 구운몽 논문으로 국어국문학 석사를 전공한 그는 2011년도 들어 34년간 봉직했던 교정직 공무원을 정년 퇴직했다. 자신의 사업체인 나운동의 '남성광고사'에서 거러져 지인을 만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영업시간이 끝난 후엔 30여년 전 인터넷 강의로 익힌 아코디언을 연습한다. 그의 사무실에 그가 수십 년째 후원하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받은 명예의 전당 후원자 선정패를 비롯하여, 전북도지사상 등 각계의 상패와 상장이 비치되어 있다.

그가 즐겨 연주하는 레퍼토리는 근대 가요인 감격시대, 선창, 짙레꽃, 청춘의꿈을 비롯하여 대지의 향구, 신사동 그사람, 홍콩아가씨, 나이아가라 등을 망라한다. 낭만 어린 그의 연주는 작년 애스타티비(AESTAR TV) 레전드 전국 왕중왕전 연주부문에서 시니어 대상이라는 영예를 안겨주었고 이 유튜브 방송은 해외에서도 인기를 더해 조회수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함으로써 현재도 꾸준히 10권이 내에 자리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작년 1월 군산시민예술단(이하 예술단) 단장으로 취임한 박 단장은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늘었다.

지난 2021년도 창단한 이후 부침을 면치 못하던 예술단이 박 단장

을 새로운 리더로 영입한 것이다. 본래 맡은 일에 전력을 다해 성과를 도출하는 성격답게 그는 취임 초기부터 고문에 함정식심, 사무국장에 가수 해민을 임명하고 연습실 환경을 정화하는 등 예술단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송현숙과 빅밴드를 비롯하여 남녀 가수들, 무용단(밸리댄스), 난타, MC등 약 25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은 시·도 지원행사(문화예술지원사업)를 비롯하여 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등을 찾아 연간 수 회에 걸쳐 봉사활동에도 열심인데 올해 들어 사회자와 일부 가수들을 새롭게 영입, 요청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겠다면서 보다 폭넓은 활동의 기대감을 주고 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배움의 꿈을 키워 온 박문원 단장, 성공을 위해 한 눈 팔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온 그를 보며 떠오르는 말이 있다. "된다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 된다 사람은 핑계를 찾는 다"는 말이 그것이다. 그에게 핑계는 없다. 목표가 정해지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뚝심으로 밀고 나간다. 대체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등 온갖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는 일단 부딪치고 여건은 나중에 만들어가는 스타일이다.



인사말 하는 박문원 단장(중절모) 우측 서있는 사람은 헤민 사무국장



왼쪽부터 박문원 단장, 함정식 고문, 가수 헤민 (사무국장) 뒤줄 왼쪽은 송현숙 악단장

그래서 철부지 소년 시절부터 집을 떠나 자기 힘으로 대학원까지 마쳤고, 공직자로서 국가를 위해 봉직하면서도 사업적 기반을 다졌으며, 독학으로 아코디언을 익혀 예술단 단장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는 알찬 인생을 구가하는 게 아닌가 한다. 그러면서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는다. 장미꽃을 나누어 주었더니 그 향기가 내 손 안에 남더라' 라는

봉사의 보람을 표현한 말은 그에게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한다. 군산 시민의장 수상자이면서 한국아코디언협회 전북도지부 회원으로, 장애인인권연대 군산지회 이사로, 한국예총 군산지회 회원으로, 군산시민예술단 단장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그에게 더 큰 보람과 행운이 같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군산시민예술단
 군산시 미원로27 2F(삼학동)
 단장 010-3659-3097

데이터로 보는 군산의 현 시점

① 쓸림의 도시, 균형의 과제



도시의 변화는 체감으로 먼저 오지만, 체감만으로는 방향을 잡기 어렵다.
동네가 한산해졌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만 무엇이 얼마나 달라

졌는지까지 확인하려면 결국 숫자가 필요하고, 숫자는 좋게도 나쁘게도 포장하지 않은 채 도시가 서 있는 자리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군산의 인구는 1990년대 초반 28만 명대를 정점으로 삼았다가 2025년 12월 25만 6,291명으로 내려왔고, 최고점 대비 약 3만 명(약 10%)이 줄었다. 2017~2018년 산업 기반의 충격이 결정 타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 변화를 사건 하나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청년의 수도권 이동과 고령화, 신도시 확장과 구도심 약화라는 전국 중소도시의 구조가 군산에서도 누적돼 왔고, 그 누적은 인구 이동뿐 아니라 생활 환경과 소비 습관의 이동으로까지 이어져 도시의 결을 서서히 바꿔놓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 감소 폭이 2023년 2,487명에서 2024년 1,933명, 2025년 1,756명으로 완화된다는 흐름은 바닥을 확인하는 국면일 가능성을 열어 두며,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변화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읽힐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희망이 '방향'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점이며,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려면 누수가 생기는 지점과 끊긴 연결을 구조로 확인해야 한다.

상권 데이터는 그 누수를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낸다. 군산의 양대 상권으로 꼽히는 수송동과 조촌동을 합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025년 1분기 기준 22.9%라는 사실은 대표 상권조차 변동성을 버티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뜻하며, 소비가 소수 거점으로 몰릴수록 생활권 곳곳의 일상 상권은 체력을 잃고 빈 점포는 다시 유출을 부르는 악순환이 강화된다는 점을 함께 시사한다. 여기서 핵심은 어느 지역이 뜨고 지느냐의 승패가 아니라, 쓸림이 커질수록 도시 전체의 생활 기반이 얇아지면서 결국 핵심 상권조차 공실과 변동의 압력을 더 크게 받게 된다는 구조다.

유동과 소비 데이터는 군산이 가진 또 다른 역설을 보여준다. 2022년 기준 연간 5,162만 명이 군산을 오가고 거래금액은 2조 1,371억 원에 이르지만, 소비는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며 외부 유입 인구의 지출은 관광지와 일부 상권에 더 두껍게 쌓인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패턴이다. 외부 유입이 점심 시간대에 집중되고 저녁은 지역 주민 중심으로 바뀌며 거래는 주말로 편중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는 군산의 소비가 '체류'보다는 '방문'에 가까운 구조로 굳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사람이 오느냐"보다 "얼마나 머무르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동선을 확장하느냐"가 도시의 매출과 일상을 가르는 변수로 작동하고, 방문형 소비가 강해질수록 일상 상권이 받는 압력은 더 커진다.

관광의 성공도 같은 질문으로 되돌아온다. 군산은 도시재생과 근대역사 관광으로 방문객을 크게 늘렸었고, 그 성과는 분명히 도시의 자산이 됐지만, 관광의 성과가 생활의 성과로 고르게 번지지 않는다는 체감 또한 남아 있다. 관광객이 늘어도 일상의 골목이 비면 시민의 생활 만족은 오르기 어렵고, 반대로 생활권이 살아 있어도 외부 유입이 일부 거점에만 떨어지면 도시는 '보이는 곳만 반짝이는' 구조에 갇히기 쉬우며, 그 구조가 오래 지속될수록 생활권 격차는 더 심해진다. 결국 군산이 지금 붙잡아야 할 핵심은 특정 지역을 띄우는 방식의 처방이 아니라, 생활권 전체가 고르게 숨을 쉬도록 만드는 '균형의 설계'이며, 관광·상권·주거·대학·산업이라는 도시 기능이 서로를 연결하면서 체류를 늘리고 소비의 동선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나운1·2·3동은 군산의 여러 생활권 중 하나이지만, 주거 밀집과 대학가, 관광 자산이 한 권역에 함께 존재해 도시의 구조적 과제가 비교적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관측 지점이 되고 있다. 2024년 한 해 나운2동 순유출 791명, 나운1동 순유출 580명이 발생했고, 2022년 거래량 데이터에서는 나운3동 973.6만 건(군산 2위)이 확인돼 '사람의 움직임'과 '지역 내 소비 정착' 사이에 간극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례의 요지는 특정 동네의 특수성이 아니라, 군산 어디에서든 유동이 일상 상권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해법은 한 지역의 부상보다 생활권 간 연결과 균형을 설계하는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도시 전체로 확장된다. 군산은 이미 연간 5,162만 명이 움직이고 2조 원대의 소비가 발생하는 도시인데, 왜 많은 골목은 여전히 비어 있고 왜 어떤 생활권은 "사람이 지나가도 매출이 남지 않는" 구조를 반복하는가. 관광의 성과가 생활로 번지지 못하는 고리는 어디에서 끊겼으며, 소비가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게 만드는 연결 장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더 나아가 군산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새로운 사실'인가, '동선을 바꾸는 운영'인가, 아니면 '머물 이유를 만드는 콘텐츠'인가. 그리고 어디에 살든 시민의 일상이 "가까운 곳에서 해결되는 도시"로 돌아오려면, 무엇보다 시작해야 하는가.



글 | 이영미
군산도시활성화연구소 대표
ycm1022@hanmail.net

바로크미술 대표 화가 - 1.카라바조



'성 마태오의 소명', 1599~1600년, 캔버스에유채, 322*340,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지 성당/콘타렐리 소장당, 이탈리아

어느덧 시대를 넘어 바로크 회화로 접어들었다. 바로크 회화의 특징은 극적인 명암 대비, 강한 감정 표현, 역동적인 구도를 보여주는 점이다. 바로크 시대를 달리는 동안 8명 대가의 작품을 간략히 감상해 보도록 하자.

먼저 바로크 회화의 선두 주자는 이탈리아 출신의 카라바조 (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 1571~1610)이다.



Caravaggio, 1571-1610, 이탈리아

카라바조의 화풍은 조용히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그의 삶은 작품의 극단적 명암만큼이나 격렬했다. 폭력 사건, 살인으로 인해 로마에서 추방되며 도망자 신세로 여러 지역을 떠돌다가 요절하였다.

그의 불안정한 삶은 그림의 재료가 되어 심리를 반영하는 요소들이 고스란히 작품에 투영 되었다.

도망자가 된 삶이 극단적 고뇌를 드러내듯 강렬한 명암 대비와 사실적 인물 표현은 이전 '르네상스 미술'이 지닌 이상적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극적인 인간의 고뇌를 표현하기에 이른다.

카라바조의 가장 큰 특징 '키아로스쿠로(명암 대비) 기법'은 화면 전체를 어둠 속에 두고, 인물이나 사건의 핵심 부분에만 강렬한 빛을 비추어, 극적인 긴장감과 감정의 몰입을 극대화 했다.

이러한 '명암대비 기법'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려내는 종교적 장면들을 신비로움과 암울한 현실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또한 그의 그림 속 종교적 인물들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을 가진 '현실의 인간'으로 묘사 하였다.

오늘의 대표작으로 올린 '성 마태오의 소명'은 어두운 공간에 한 줄기 빛이 인물을 가르며 들어오고 있다. 화면에서 차지하는 빛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 할 수 있을까. 쉴 곳 없이 떠도는 그의 육신과 마음을 쉴 수 없었던 허공의 사이에서 빛은 그의 이상 세계를 화폭에 담게 하였을 것이다.

후대에 카라바조는 '카라바조주의자(Caravaggisti)'라 불리는 수많은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바로크 미술의 극적 표현과 사실주의적 경향을 확립한 인물로 오늘날까지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배수정
서양화 작가
국립군산대학교 서양화 강의

문학과 사람과 함께, 마음 속 꽃길을 걷는 시간. 삶은 은유이고, 사람은 꽃입니다.

<오늘의 시>

노을빛으로 오신 당신 / 김선순

바라볼 수조차 없던 해는
그 자체로 아버지였다

너무 멀고, 너무 뜨겁고,
너무 강해 다가설 수 없던

그러나 해가 지면
물 위로 번져드는 그 노을빛이
바로 내 안에 스며든 아버지의 숨결
세상에서 사라진 그가
어디선가 나를 향해 숨 쉬는 듯

그의 무게는 나의 뼈에
그의 침묵은 나의 말에
그의 걸음은 나의 하루에 남았다

한때는 너무 멀고, 너무 낮설고
때론 두려웠던 그 빛을
이제는 가만히 내 안에 들인다

그가 남긴 노을빛은
그리움으로
버티는 힘으로
내 삶을 비추고 있음을

나는 오늘, 그 노을 속에 선다

당신과 잇는 마음치유의 순간

나와 아버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긴 강이 있었다.
미움도 그리움도 없는, 아무 감정도 일지 않는 거리였다.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고 여덟 형제의 가장이었다.
아들 중심의 세계에서 딸의 희생은 당연한 질서였고,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너무 강해 대꾸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마음에서 지웠다.
지워낸 자리에는 오랫동안 공백만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청소년들을 만나며 비로소 깨달았다.
아버지의 부재가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해 지는 저수지를 건다 한 장면이 떠올랐다.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했던 아버지가 동구 밖에 서서 나를 기다리던 모습, 그리고 짧고 둔탁한 한마디. “왔냐.”
그 순간 알게 되었다. 말하지 못했을 뿐, 아버지는 온몸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치료는 잊고 지낸 감정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는다.
대신 준비된 순간, 감정이 스스로 말을 건네게 한다.
이 시는 그렇게 도착한 화해의 언어였다.

**당신에게 아직 건너지 못한 ‘긴 강’이 있나요?
오늘, 그 강 너머의 누군가에게 어떤 안부를 건네고 싶나요?**



안부시인 김선순
시치료·독서치료전문가
봄봄문학상담연구소 대표

군자고궁(君子固窮) 속 군자가 되려면 ‘내가 일군 내 식당을 차려라’

식당을 개업하려는 이들에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만의 가게를 일궈나가는 것. 또 하나는 프랜차이즈에 가맹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것.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할 것은 없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 일이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자신의 손으로 일부터 백까지 이루는 성취감을 추구하는 이들이 적어진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프랜차이즈는 가게를 처음 운영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가게 운영 노하우를 받아 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메뉴와 재료도 본사에서 정해진 것으로 서비스하면 되니 손쉽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생각을 식당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타인의 생각과 전략으로 장사 해야 한다.

충분히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식당을 개업해 운영 할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예를 하나 들어준다. 화전민들이 산을 농토로 만들 때 독이 되는 자리가 많다. 하지만 그 자리를 아주 못쓸 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 땅을 어떻게든 살려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 땅은 비옥한 토지가 될 수 있다. 그 좋지 않은 땅이 옥토가 되기 위해선 노력과 함께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

창업을 할 때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 피해서 안 된다. 화전민이 논밭을 개간할 때 자갈을 다 고른다. 누구는 자갈을 없애는데 급급한데, 누구는 그 자갈로 탑 혹은 담을 쌓는다. 그렇게 하면 후에 돌이 분명 필요한 일이 생길 때 사용할 수 있고, 미관상 보기도 좋다. 창업도 마찬가지다. 불모지에서 시작하는 화전민과 같이 옥토를 만들기 위해 경험하고 경우의 수를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진정한 창업가의 면모

를 발산한다.

프랜차이즈는 속성주의다. 자신의 창업주가 돼 전통적인 명가가 되려는 생각을 가진 이가 없다. 참담하다. 곰삭은 식당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다들 트렌드만 쫓기 바쁘다. 이래서 백 년은 고사하고 십 년을 버틸 수 있는 가게들이 대체 몇이나 될는지 걱정이 앞선다.

군자고궁(君子固窮)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군자는 어렵고 궁핍 할 때 더 굳고 심지가 깊어진다는 뜻이다. 공자와 제자들이 진나라에 있을 때 양식이 떨어져 따라간 자들이 쇠약해져 일어나지 못했다. 자로가 화가 나서 공자도 말하기를 “군자도 또한 곤궁함이 있습니까?” 그러자 공자는 “군자라야 본래 곤궁할 수 있으나 평상시와 다름없고 소인은 곤궁하면 바로 넘쳐버린다.” 라고 말했다.

군자고궁에는 내 뜻을 굽혀 세속의 편한 길을 따르느니 떳떳한 역경을 선택한다는 결연함이 담겨 있다. 군자는 역경을 겪을수록 더 강해진다. 소인은 다르다. 소인은 재물을 잃으면 안절부절못하고,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혼비백산한다.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기 때문에, 평소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한다. 넘쳐버린다는 말은 강물이 강을 따라 흐르지 못하고 범함한다는 뜻이고, 제 갈 길을 잃어버리는 뜻이다. 식당을 일구려는 모든 이들이 군자의 마음을 갖길 진심으로 바란다.



김철호
식품의약학 이학박사, 대한민국명인
수산신지식인, 내고향씨푸드 운영

솔잎 땀감과 소나무

땀감이 궁한 겨울이 되면 젊은 엄마와 나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어린 동생을 등에 업은 엄마가 갈퀴로 모은 마른 솔잎을 포대에 가득 담아 머리에 이고 왔다. 대개는 산 주인에게 돈을 주고 솔잎을 샀지만 어느 때는 몰래 하기도 했나 보다. 산 주인에게 들켜서 포대에 가득 모았던 솔잎을 두고 쫓겨난 적도 있으니.

마른 솔잎을 아궁이에 넣고 태우면 아주 잘 탔다. 더러 생솔가지가 섞여 있는 날은 타닥타닥 경쾌한 소리가 깔깔 웃음소리처럼 좋았다. 솔방울이 들어 있을 때는 마치 뽕뽕이 과자 안에 들어 있는 별사탕 같았다.

제주 송악산에 가 폭신평신히 쌓여있는 마른 솔잎을 보니 옛 생각에 애잔했다. 옛날 땀감이 아쉬울 때는 마른 솔잎조차 사람에게 베풀 덕이 컸겠구나 생각했다. 갈퀴 들고 솔잎을 긁어모으고 싶어졌다.

소나무는 추운 백두산 주변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친근한 나무다. 마을 뒷산에 가면 소나무가 있어 소나무를 타고 놀던 기억 하나쯤 품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소나무는 조선시대 '금송령(禁松令)'을 내릴 만큼 나라에서도 보호하

고 가꾸어 왔다. 우리 산이 천이 과정 그대로라면 활엽수로 뒤덮일 산에 소나무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소나무는 또한 우리 민족의 강인한 정기를 상징하는 나무다. 겨울에도 늘푸른 기개를 자랑하니 예부터 선비들이 그린 그림에 등장하는 나무도 소나무다.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 바위의 좁은 틈, 또는 바위를 뚫고 자라기도 하여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한다. 우리 소나무는 솔잎이 두 가닥으로 나지만 1906년부터 수입되어 식재된 리기다 소나무는 솔잎이 세 가닥으로 나뉜다.

지금은 아무리 솔잎이 많이 쌓여 있어도 갈퀴를 들고 산에 오를 일은 없을 것이다. 솔잎을 때고 싶어도 땀 아궁이가 없을뿐더러 넣자마자 금방 타버리는 솔잎 연료에 의존하기엔 세상은 이미 풍족함에 익숙해져 버린 듯 하다. 간간히 어느 산에 불이 났다는 비보가 들린다. 그러면 한 무리의 소나무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린다. 우리 산을 돌보고 아끼는 일은 곧 소나무를 귀히 여기는 마음과 상통할 것이다.



제주 송악산 소나무

암벽에 뿌리내린 무의도 소나무



신술원 시인 /
시인 / 한국아동문학회, 전북작가회의 회원
문 밖에서 만나는 나무와 풀, 곤충을 사진에 담고 이야기한다.



전북 최초 이명치료기 'ALTMS' 도입



전경호 JKH ENT Clinic
이비인후과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252 2-3층 T: 063-471-5575

군산과 새만금 지역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려는 매거진 군산·새만금을 위하여 보내주신 격려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매거진 군산·새만금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독자 관리를 위하여 CMS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이 신청서는 군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 1. 권유하신 분께 직접 전달 2. 팩스로 송부 (063) 442-3883
3. 사진 찍어서 이메일 newgunsanews@naver.com

이런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출금이체서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수납기관명 : 문화관광 사람과 길(매거진 군산) ·대표자 : 채명룡 ·사업자등록번호 : 241-43-01344
·사업장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절골3길 16-2(신흥동) ·수납 요금종류 : 구독료 납부

- 매거진 군산·새만금 구독 (7,000원/월)
□ 새군산신문 + 매거진군산·새만금 구독 (10,000원/월)

■ 구독받으실 주소

[Empty box for subscription address]

·출금계좌 예금주명_ ·금융기관명_
·출금 계좌번호_
·예금주 생년월일_ 계좌 예금주가 사업자일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예금주 연락처(휴대전화)_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경우
·신청인명_ ·예금주와의 관계_
·신청인 연락처(휴대전화)_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족발야시장 군산미장점

맛있는 재료로 만든 졕발의 명가

대표 전 재 용

군산시 미장1길 38 102, 103호

TEL: 063-453-4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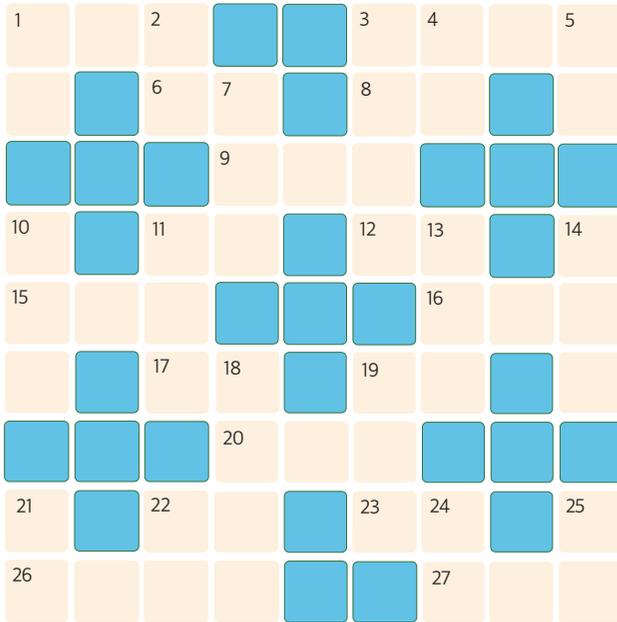
국내 1위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수강 전문 기업-세아베스틸
이제, 세계 최고의 특수강 메이커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Born to be Special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171



대	사			대	결	
육	체	노	동	전	광	석
휴		한	글	날	재	
진	일	보		피	출	판
흔		부	경	전	입	상
곡	물	상		종	문	필
심		허	영	심	수	
수	양	아	들	청	맹	과
면	직				수	목

<170호 해답>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 새만금에 보내주세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에이본호텔 썬데이 브런치 2인)을 드립니다.
 Fax. (063)442-3883 E-mail. leejony_@daum.net
경품 추첨을 위해 팩스, 메일 보내주실 때 반드시 연락처 기재 바랍니다.
 출제: 오성렬(편집위원) 협찬: 에이본호텔 군산

▶ 가로 열쇠

- 01 음식을 먹은 뒤에 그릇을 씻어 치우는 일.
- 03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결.
- 06 아버지의 친형제자매 자녀들과의 촌수.
- 08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
- 09 옷이나 장갑 따위를 실이나 털실로 펴서 만드는 일.
- 11 중국 한나라 때 사마천이 지은 역사책.
- 12 무·우엉·토란·마늘처럼 뿌리를 먹는 채소.
- 15 얼굴을 잔뜩 찌푸린 모양.
- 16 부끄럽거나 창피하여 붉어진 얼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당근.
- 17 어떤 결과를 자기가 생기게 함.
- 19 가톨릭의 예배 의식.
- 20 나룻배가 달고 떠나는 일정한 곳.
- 22 한 달 가운데 1일에서 10일까지의 동안.
- 23 잠잘 때 몸을 덮는 침구.
- 26 한 해의 마지막 때와 새해의 첫머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 27 어린아이에게 등에 업히려는 뜻으로 내는 소리.

▼ 세로 열쇠

- 01 우리나라명절의 하나.정월 초하룻날
- 02 나라와민족을위하여제 몸을버쳐일하려는 뜻을 가진사람
- 03 껌따위 질것한물건을자꾸 씹는모양
- 04 넉넉하고 많음
- 05 걸어감
- 07 촌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10 2025년은 뱀띠해인 을사년 2026년은 말띠해인 000.
- 11 죽은 사람과 다친 사람
- 13 조선 연산군 때에 창기 중에서 고운 계집을 뽑으려고 전국에 보내던 벼슬 아치
- 14 일의 끝맺음
- 18 한 기관의 관리자나 책임자 등이 부임한 후 처음으로 그 관할 지역을 돌며 시찰하는 일
- 19 벽이나 천장, 바닥 따위에 흙, 시멘트 따위를 바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21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함
- 22 연극이나 영화 따위를 무대나 극장에서 관객에게 보이는 일
- 24 프랑스말
- 25 씨름 할 때 상대방이 잡을 수 있도록 허리와 다리에 둘러 묶는 천이나 줄

"매거진군산 새만금과 함께할 필진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063-445-4700
 이메일: leejony_@daum.net